

	보 도 자 료	작성과	예 방 안 전 과
 행정안전부	2020년 11월 27일(금) 조간 (11. 26. 12:00 이후)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지만석 주무관 오영남
		연락처	044-205-4510 044-205-4521 (010-3033-5709)

본격적인 겨울, 12월에는 대설·한파·화재에 주의하세요!

- 내 주변 눈 치우기, 추위에 장갑 모자 챙기기, 난로 켜 놓고 자리 비우지 않기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가 1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대설과 화재, 한파를 선정하고,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.

< 1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>

대 설	한 파	화 재
		

-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(재해연보·재난연감 / 행정안전부)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,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*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.

* '13년~'19년 국내에서 발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(118만 건) 및 트윗(7,625만 건)

-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,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(대설) 을 겨울에는 강원 영동이나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최근 10년('09~'18) 동안 1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*는 평균 7.1일로, 1월(평균 5.8일), 2월(4.5일)과 비교해 눈이 자주 내리는 편이다.

* 눈 현상일수 : 전국 13개 지점(강릉, 서울, 인천, 수원, 청주, 대전, 대구, 전주, 울산, 광주, 부산, 제주, 춘천)에서의 눈 관측 일수 평균

< 최근 10년('09~'18년, 합계)간 대설특보 발표 현황 (단위: 회) >

구 분	합 계	12월	1월	2월
대 설	2,004	830	718	456

< 대설특보 발표 기준 >

주의보	경 보
24시간 신적설*이 5cm 이상 예상될 때	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(산지는 신적설 30cm 이상)

* 새로 와서 쌓인 눈

[출처: 기상청]

○ 12월은 대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, 최근 10년간('09~'18년) 총 10회의 대설로 70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.

< 최근 10년('09~'18년, 합계) 동안 대설피해 현황 >

구 분	합 계	12월	1월	2월
피해발생(회)	29	10	10	9
재산피해(억)	1,873	707	571	595

※ 인명피해 없음, 당해년도 피해기준

[출처: 행정안전부 재해연보]

< 주요 대설 피해 현황 >

▶ ('14.12.1. ~ 12.6. 충청 이남과 서해안지역 대설)

지상 5km 부근 -30℃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내려오며, 해상에서 형성되는 눈구름대와 만나 충청 이남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145억 원의 피해 발생

※ 최심적설(cm): 태안 28.0, 서산 27.5, 당진 20, 보령 19.5

-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하고, 특히 붕괴 위험이 높은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해야 한다. 또한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하여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한다.

□ (한파) 올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.

- 최근 10년('09~'18년) 동안 12월에 관측된 0℃(일 최저기온) 미만 일수는 23.7일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.

※ 일 최저기온 0℃ 미만 일수: **12월 23.7일**, 1월 26.5일, 2월 22.3일

- 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*자는 총 1,339명 발생하였고, 추위가 기승을 부린 '17년 12월에서 '18년 2월 사이에는 63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.

* 추위로 발생하는 저체온증, 동상 등의 질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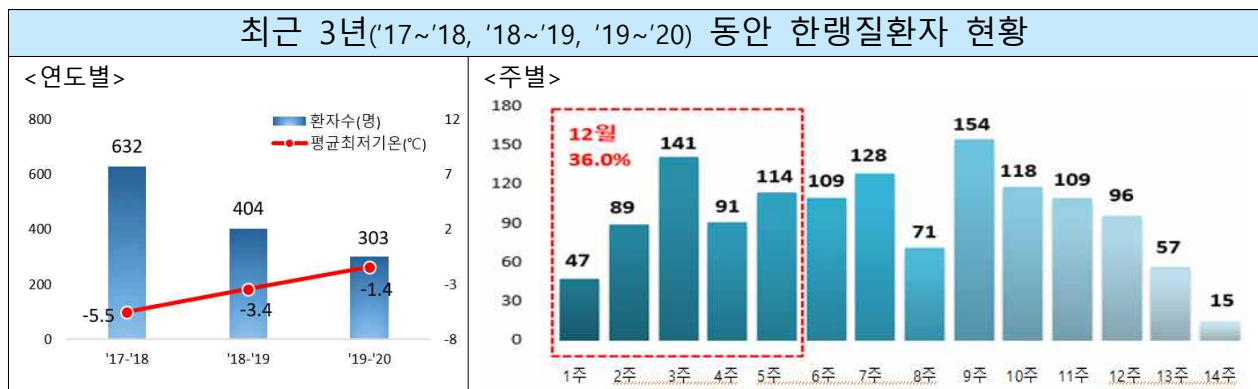
- 이 중, 12월에는 36.0%(총 1,339명 중 482명)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< '17년 지속적인 찬 공기 유입으로 추웠던 12월 >

- ▶ 11월 중반에 시작된 북극진동이 12월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북극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였고, 우랄산맥-카라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이 정체하며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

※ (한강 결빙) '17. 12. 15일, 평년(1.13.)보다 29일 빠름

※ 일 최저기온(℃): (12.13.) 파주 -18.8, 동두천 -16.6



※ 기간: 12.1~ 2월 말('17~'18, '18~'19, '19~'20)

[출처: 질병관리청]

- 이에, 한파가 예보되면 노약자와 영유아가 있는 곳에서는 난방 등을 통해 온도관리에 유의하고, 외출 시에는 장갑과 모자 등의 방한용품을 챙겨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< 한파특보 발표 기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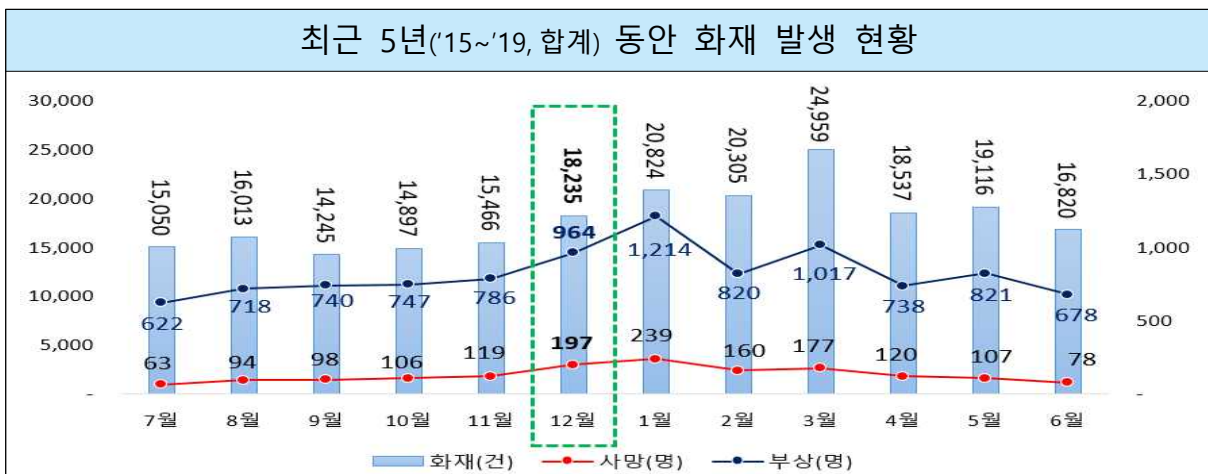
주의보	경 보
10월~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-12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	10월~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-15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
[출처: 기상청]

- (화재) 겨울철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난로(전기, 가스, 석유, 나무 등), 전기장판 등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.

- 최근 5년('15~'19년)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4,467건이며, 11,423명(사망 1,558, 부상 9,865명)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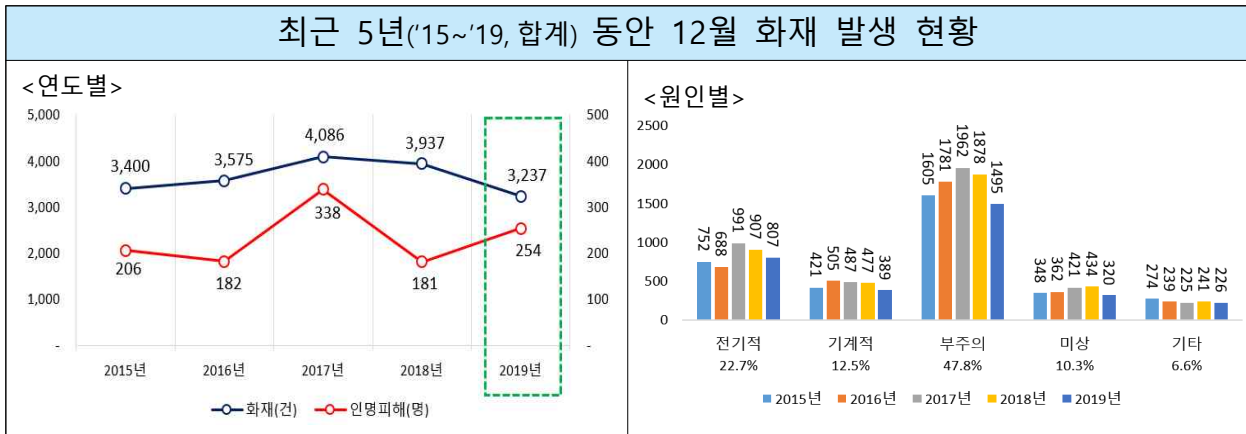
- 이 중, 12월에는 18,235건의 화재로 1,161명(사망 197명, 부상 964명)이 사망하거나 다쳤다.



[출처: 국가화재정보시스템]

○ 또한, 최근 5년 동안 12월의 화재 발생 추이는 비슷하지만, 인명피해는 지난 '19년(254명)이 '18년(181명)에 비해 73명이나 증가하였다.

- 12월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부주의(가연물 근접 방치, 화원(불씨·불꽃) 방치 등)가 47.8%(총 18,235건 중 8,721건)로,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



[출처: 국가화재정보시스템]

○ 화재 예방을 위해 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,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.

- 또한,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한다.

□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“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,

○ “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한에 유의하셔야 한다.”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”라고 강조했다.

국민행동요령
대설



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, 연료 등
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.



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.



스노체인, 염화칼슘, 삽 등
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.



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,
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.



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,
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.



차량이 고립된 때는 119에 신고하고,
차 안에서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해
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.



화재

화재대처

· 불을 발견했을 때

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

-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**"불이야!"** 라고 소리치거나 **비상벨**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.



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.

-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.
-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.
-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,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.



비상구 활용



완강기 활용



경량칸막이 활용



실내대피공간 활용

※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
· 알아둬시다! 완강기 사용법



-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.



- 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(줄)을 던진다.



-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.



-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.

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
먼저 확인합니다.

1.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.
2.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(줄)을 던진다.
3.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.
4.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.

화재

화재진압

• 소화기 사용법



실내에서 사용할 때는
밖으로 대피 할 때를
대비하여 문을 등지고

1.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.
2.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.
3. 손잡이를 딱 움켜쥜다.
4.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.

• 소화기 사용법



2인 1조로
사용할 경우

1.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
2. 호스를 밖으로 끄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(관강)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.
3.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.
4.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.

• 옷에 불이 붙었을 때



얼굴 화상방지와
연기가 폐로 들어가지
않도록

1.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
2. 얼굴(눈, 코, 입)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.
3. 바닥에 엎드린 후
4.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.